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재외동포청 최적지</b> <b>인천뿐입니다</b>
	배포일자	2023년 3월 17일(금) 총 2매	
담당 부서 <b>데이터산업과</b>	담 당 자	• 인공지능융합팀장 임지원 ☎440-4941 • 담당자 최광진 ☎440-4942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공모선정

-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 수요 높아지며 가명정보처리 수요도 증가 -
- 데이터의 합법적 활용과 융합 촉진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인천시가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구축해 데이터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주관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알아볼 수 없게 조치(삭제 등)해 추가적인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정보를 말한다. 최근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가치가 높은 반면 침해의 위험성이 있어, 연구·산업 분야에서 가명정보처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자원인 만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체 데이터 중 75%를 차지하는 개인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인프라) 및 환경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구축되는 ‘인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오는 3월 협약을 통해 인천테크노파크가 위탁받아 운영한다.

※ 국내에서는 서울('20년), 강원('21년), 부산('22년)에 이어 네 번째로 설치

센터는 가명처리 기술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공 및 중소·스타트업 등에 대해 컨설팅·기술지원 등을 추진해 가명정보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활용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가명처리 수요 증가에 대비해 가명처리 관련 전문성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예비인력, 실무자 등 대상별 전문교육도 추진한다.

또한 가명처리 기술과 기반시설(인프라)가 부족한 사업자 등을 지원하고, 데이터의 활용과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성능 시험장(테스트 베드)도 운영한다. 가명정보 활용 인식 개선을 위해 시민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해 시민들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과도 신속하게 확산시킬 방침이다.

시는 타 시·도와 차별화 되는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특화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제약분야와 물류산업 분야, 헬스케어 등 주력산업에 가명정보 활용 수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여러 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화해 결합·분석하면, 매우 유용한 데이터가 창출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에서 가명처리와 가명정보 결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